

불편부당·문화창달·지역개발... 한결같은 호남사랑 66년

불편부당 66년

격변의 시대 시민 절규 대변 울곧은 필봉으로 역사 전인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뱃속까지 스미는 추위 속에 숯불화로 하나에 의지한 채 만들어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신문들이 취했던 저항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불편부당한 정론'을 고수하려 애쓰고 있으며, 객관적 보도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객관적 사실 나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심층보도와 기획취재로 지역 여론을 이끄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사설은 뉴스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 시사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최초의 사설(1952년 2월20일자 1면)은 창간 후에 실린 '소련중립국 운운의 부당성'이다. 당시 관문점에서 열리고 있던 휴전협정회담에서 공산측이 소련을 휴전감시국에 포함시키자는 요구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같은해 2월23일자 사설에서는 '우려되는 소년범죄'라는 제목의 사설로, 국가재건에 앞장서야 할 소년들을 위해 먼저 어른들의 의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1960년 4월22일자 사설에서는 4·19혁명의 정당성과 계엄 해체를,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18일에는 군부가 조속히 정권을 민정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사설에 앞서 정치부와 사회부, 경제부 등은 발빠른 취재와 문제 의식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깨내고 개선을 이끌어냈다.

1967년 6월8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이뤄진 공개투표 보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마을이장은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기표 용지를 일일이 확인받은 후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서슬퍼런 유신 체제 속에서 검찰은 광주일보의 보도로 축소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장, 읍장, 경찰서장, 당선자 등이 잇따라 구속됐다.

1985년 3월4일자 사회면에서는 '교사채용미끼 1억사위, 고교 교무과장 잠적' 기사를 통해 사립중·고교 교사채용 금품수수사건을 다뤄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기사로 인해 당시 사립중고교재단들이 교사채용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요구한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표면에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이후 '전교조 파동' 때 교사들의 '기부금 반환 요구'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사립교원 공채제도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광주일보는 서민들의 삶도 주목했다. 1962년 1월13일자 사회면에서는 여수의 한 섬에서 6년간 나뭇배로 뱃길 3만리를 저어 초등생 딸을 육지까지 데려다 준 30대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했다. 힘겹게 딸이 졸업하게 됐지만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어머니가 애를 태우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보도 이후 전국에서 격려 편지가 쏟아졌고 '모정의 뱃길'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여수를 방문, 모녀를 표창하고 딸의 진학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여수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장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모정의 뱃길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광주일보 사훈은 지역을 어떻게 바꿨나

1952년 창간 이래 광주일보가 66년 동안 지향한 편집 방향은 ▲공정·정확·신속을 바탕으로 한 정론 ▲민족문화의 향상 ▲통일과 지역개발 등이다. 1980년 12월1일 옛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통합해 광주일보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불편부당한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 등 사시 3개 항이 제정된다. 광주일보의 사시에는 향토지(郷土紙)로서 애향(愛郷) 정신이 담겨 있다. 광주일보 사시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66년을 되돌아 본다.



지난 2016년 12월8일부터 광주송정~수서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SRT.

지역개발 66년

나주비료·여천석화 유치 앞장 호남고속철·혁신도시 등 일조

광주일보가 창간될 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역 곳곳에 절망만 가득했다. '지역개발'은 당시 지역 유일한 언론이었던 광주일보의 사명이였다.

창간 4년을 맞은 1956년 광주일보는 '나주비료공장(현 LG나주공장) 유치'라는 지역민의 소망을 집중 보도하며 같은해 8월13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냈고 1962년 준공됐다. 이를 계기로 호남에는 철도, 도로, 공항 등 기반 시설 조성이 시작됐다. 1964년 4월28일 경전선 공사가 시작됐고, 같은해 광주공항 활주로 개통, 목포~부산 직통열차 운영, 고흥 해장만 간척사업(1965년), 장흥 대덕 간척사업(1966년) 등으로 이어졌다.

5·16쿠데타 직후 집권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호남 푸대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1966년 3월20일자 '전남 푸대접,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비 등 배정 없어, 결기대회 등 강력한 대책의 소리' 기사를 통해 전남 국회에서 통과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지적했다. 영남 위주 개발정책을 정면으로 다루며 정부를 압박해 호남선 복선화 착공(1969년10월8일), 호남고속도로 기공(1970년 4월15일) 등을 이끌어냈다.

또 여천석유화학 12계열 공장 합동 기공식(1976년 11월10일자), 광양제철 1기 공사 준공(1987년5월7일자), 호남~충남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1981년2월13일자), 대불산단 착공(1989년11월3일자), 광주 첨단산단 조성계획 발표(1990년11월2일자) 등 굵직한 현안을 상세히 보도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철도·호남고속철 개통, 빛가람혁신도시 등에 집중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당초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결정됐으나 도시 미관 저하, 소음, 설치 후 변경 불가능 등 문제점을 제시해 이를 백지화(2011년4월20일자)시키기도 했다. 또 2005년11월22일자 사설 '공약(公約) 18년 호남고속철'에서는 18년째 전체 예산 15조원 중 60억원만 투입한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조성 발표 이후 일부 시·도에서 유치전을 벌일 때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공동주성을 적극 지지하며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이전에 일조했다.

문화창달 66년

3·1절마라톤·호남예술제 등 지역인재 육성 산실 자리매김

광주일보는 '남도창'(南道唱·1973년·26회), '천년가람(千年伽藍·1987년·140회)',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2012년~) 등의 기획물로 광주·전남 문화·예술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남도창'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했던 남도 판소리를 정리해 학계·예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연재물로 평가받았다.

1987년부터 4년간 140회를 주간 연재한 광주일보 사상 최초의 전문 종교물인 '천년가람'은 500여 전남 사람 대부분을 역사적·학문적·문화재적으로 정리하는 등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데 공을 들인 역작이다.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지난 2012년 4월19일부터 중앙아시아·인도·중동·인도차이나 등 9개국을 도는 대장정으로 지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기획물이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체육 영재 발굴과 지원 사업도 주도했다.

광주일보가 진행하는 '호남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역사로 평가받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63회를 맞는 호남예술제는 예술인들을 키워낸 텃밭으로, 5·16·5·18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단 없이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항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특별한 문화 행사가 적었던 1970년대만 해도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15회(1970년) 호남예술제 개막식에는 무려 10만명의 인파가 광주공설운동장에 모여들 정도였다.

지금까지 호남예술제 참가자 수는 53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세계를 주름잡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육자가 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63회 대회가 준비 중으로 오는 5월29일까지 예술 꿈나무들의 실력 향연이 펼쳐진다.

창사 61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 11년 만에 복간한 '예향'은 33년 역사를 헤아리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로,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콘텐츠와 수준 높은 문화담론을 펼치며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랑받는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적인 체육 행사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5일 치러진 제53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회원 20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달 4일 열린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동민의 손에는
**새로운
희망을**

국민의 식탁에는
**행복한
건강을**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할수록 더욱 커지는 농업의 가치, aT는 농수산물식품산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더 큰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농식품 수급안정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농식품 유통효율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플랫폼 강화



식품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